

권요안 “통합 부결 시 김관영 지사 사퇴하라”

권 의원 20일 임시회서 ‘맹비난’
높은 반대여론에도 주민투표 강행
“민심 외면한 통합 찬성 여론몰이”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통합을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운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투표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부결될 경우 도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지난 14일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방문해 ‘통합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며, “이는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절규이자 완주군민의 생존을 건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세 차례 무산된 통합 논의가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치적 공약으로 다시 불붙으며, 지역사회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도지사는 공정한 조정자가 아니라 사실상 통합 찬성 캠프의 선봉장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집요하게 주장해왔



권요안 도의원

책임은 김관영 지사에게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전적으로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완주군민 6천여 명의 찬성 서명에 비해 3만6천여 명의 반대 서명이 제출됐다. 이것이 바로 민심의 방향이다”며, “그럼에도 지사는 민심을 외면한 채 통합을 밀어붙이며 통합 찬성 여론몰이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만약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부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 지사에게 있다”며,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당시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김 지사도 도민의 뜻을 거스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순창군 ‘전북 유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2만7천명 군민에 360만원 지원
체계적 준비·군민 참여로 성과
선순환 경제 모델 구축 기대

순창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종 7곳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이달 13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북 7개 군을 포함해 10개 광역시·도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16일 1차 서류심사에서 순창, 진안, 장수 등 3개 군을 포함한 12개 군이 통과했고,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20일 최종 7개 군으로 압축됐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7천여 명의 군민으로, 연간 487억 원, 2년간 총 973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순창군은 기본소



순창군, ‘8.2대1 경쟁’ 뚫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선정

순창군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종 7곳에 선정됐다.

<사진=순창군>

득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과 행정 추진력, 그리고 군민의 높은 참여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

지 정책을 통한 행정적 기반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농촌유학 등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설계한 것이 공모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은 ‘모두의 햇빛 프로젝트’를 통한 재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모델을 계획하고, 생활인

프라 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소득이 지역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설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체계적 활성화 모색

이명연 대표위원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북형 치유음식’ DB 구축

전북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위원 이명연)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원광대학교 연구진, 전북자치도 관광산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형 치유 음식관광 발전 방향을 논의했

다.

이번 연구는 치유 관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보유한 풍부한 음식문화 자산과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책임자인 원광대학교 순정민 교수(식품영양학과)는 “지역별 치유음식 관광 사업은 지역의 지형, 문화, 자연환경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치유 음식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북자치도의 치유음식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체험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회복과 웰니스 중심의 체류형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형 치유음식관광을 위한 ▲지역자원 기반 구축(전북형 치유음식 DB화 추진), ▲치유 콘텐츠 개발(한옥밥상, 장담그기, 미니 김장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음식관광 플랫폼 조성(세대별 맞춤형 치유음식관광 코스 개발), ▲산업·경제 선순환 구축(전북형 치유음식관광 페스타 개최), ▲지속 가능한 브랜드 확립(Jeonbuk Healing Food Certified 제도 확립) 등 5단계 추

진 전략도 제시했다.

이명연 대표위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음식관광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전북자치도가 치유 음식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제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위원, 장영국, 전용태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의원 “상호금융 보이콧심각”

5년간 상호금융권 계좌 7만 건 정지
피해액 3,433억 환급률 21%에 그쳐
“고령층 맞춤형 예방 교육 필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5년간 국내 상호금융권(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약용돼 지급정지된 계좌가 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보

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 9,837건,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7만 129건으로 집계됐다”며 밝혔다. 금융권별로는 농협이 5만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5년간 3,433억 원, 환급률은 738억 원으로 환급률은 21%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역금융기관의 특성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높은 만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K-푸드, LA 엑스포서 북미 입맛 사로잡아

전북 20개사 참여 홍보관 운영
현장 판매 37만 달러 성과
김치·떡 등 주요 품목 완판

전북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K-푸드 열풍을 이어가며 전북 식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LA 서울국제공원(Seoul International Park)에서 열린 '제19회 L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도내 20개 농수산식품 기업이 참가해 전북홍보관을 운영했다. 이 기간 현장 판매액 372천 달러의 성과를 거두며 북미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엑스포는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이 주최하는 LA 최대 한인축제가 북미 대표 K-푸드 행사로, 4일간 약 30만 명이 방문했다. 신선 농산물, 전통·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발효식품 등 다양한 품목이 전시·판매되며, 한인 교포는 물론 현지 미국인과 히스패닉 등 다양한 소비자들이 한국 식문화를 체험했다.

전북도는 '전북 식품의 건강한 맛, 세계로'를 주제로 도내 유망 식품기업 20개사가 참여한 전북홍보관을 마련했다. 홍사떡, 김치, 계장, 젓갈, 국수, 단백질 셰이크, 콤포트 등 전통과 트렌드를 결합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정직한 맛과 품질'이라는 전북 식품의 강점이 현지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행사 기간 전북홍보관에는 연일 인파가 몰렸고, 김치·계장·떡 등 주요 품목은 중반 이후 잇따라 완판 되었으며, 시식·시음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 "포장 디자인이 세련됐다"는 호평을 남겼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미국 관세문제 등



도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LA서 열린 '제19회 L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도내 20개 농수산식품 기업이 참가해 전북홍보관을 운영했다. <사진=전북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내 식품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기대하고, 현장 반응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 트렌드와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북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축산업장은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전북이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 식품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체험형 마케팅을 강화해 도내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제45주년 도민의 날 기념식 개최

전북인대상 4개 부문 시상
900여명 참석 '100년 도약' 다짐
도립국악원 창극단 등 축하 공연

전북도는 20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45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기관·단체장, 출향도민, 전북인대상 수상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전북의 새로운 100년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개막 공연 '덧으로 사는 세상'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도민현장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의장이 함께 교차 낭독하며, 전북도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정신을 함께 선언했다.

올해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혁신,

경제, 문화, 나눔 4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에게 수여됐다. 혁신 부문에는 국내 최고 고상형 친환경 통학버스를 개발한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이사, 경제 부문에는 지역 인재 채용과 수출시장 개척에 이바지한 이주협 대륜산업㈜ 대표이사, 문화 부문에는 'K-컬처 성지 전북 2036 프로젝트'를 추진한 임오경 국회의원, 나눔 부문에는 장학사업과 꾸준한 기부활동을 해온 김영일 천일주택건설 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행사 후반부에는 바리톤 오요한과 소리꾼 이용선의 축하무대가 이어졌으며, 도립국악원 무용단과 창극단의 남도민요 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함께 '전북 아리랑'을 제창하며 도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전북도는 20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45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전북자치도>

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자치의 새 시대를 열었고,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피지컬AI 예타면제 확정, RE100 추진, 대광법 개정안 통과 등 전북의 미래를 여는 성과를 이뤄냈다"

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새만금수목원 하도급 23건 중 전북업체 단 1곳"

근로일수 중 전북인력 17%뿐
특별법 우대조항 사실상 무력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새만금수목원 사업 하도급계약 23건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에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은 단 1건 뿐인 걸로 확인됐다"며 지역업체 홀대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수목원 사업은 현재 디엘이앤씨를 중심으로 5개 업체

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이며, 이중 전북에 영업소를 둔 업체는 동경건설과 정주건설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 두 업체의 공동이행 비율은 각각 5%씩 총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료 분석결과, 계약업체들이 상시근로자로 지역주민을 채용한 근로일수는 전체 37,962일 중 6,460일로 17%에 불과했으며, 비정기 고용인력을 포함하더라도 45.5% 수준인 17,634일에 그쳤다. 반면, 전북업체인 진흥설비(익산 소재)의 경우 지역주민 고용률이 100%에 달



이원택 의원

했다.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제53조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디엘이앤씨의 하도급 선정 절차 및 발주

업체를 사실상 확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의 핵심사업인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타 지역만 배불리는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삭감된 새만금수목원 예산 복원에 힘쓴 도민들의 노력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비 10억 원 반영을 촉구하며 "서해안권 균형을 위해 산림청이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율=김영목기자

국주영은 "청년농 정책 정착형으로 전환해야"

10년 새 청년농 비율 '절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12)이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육성 중심의 단기 지원정책에서 정착형 청년농업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 의원은 "도내 청년농업인 비율이 2015년 전체 농업인의 13.5%에서 2024년 7.8%로 불과 10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청년이 떠나는 전북 농업의 현실은 인적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이며 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구조적 위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 창업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완화해 달라고 절실히 호소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청년농 지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감각이 행정 속에서 반복되는 자금 지원은 청년들을 '희망의 주체'가 아닌 '빚더미 위의 농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청년농 육성 시스템"이라며 정책 전환의 구체적 방향을



국주영은 도의원

제시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선발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바꿔, 예비 청년농의 역할을 검증하고

성장 단계별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본의 '사람·농지플랜 제도'처럼, 지역이 주도하여 청년의 정착부터 농지 확보, 자금 지원까지 연계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구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지역 연계 청년농 육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멘토링 시스템을 마련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전북 농업의 미래 그 자체로 그들의 도전이 희망으로 꽃필지, 빛으로 끝날지는 전북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며, "더 이상 청년들이 꿈을 접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95% 달성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전북도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월 19일을 기준으로 총 1,545,798건, 1,546억 원 신청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1,627억 원 중 95%에 해당한다.

2차 소비쿠폰의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 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11월 30일까지며, 사용하지 않은 소

비쿠폰은 소멸된다.

전북도는 미신청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주민센터에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전 지역의 신청 접근성을 높이고, 소외 계층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의약품 '중대 부작용' 급증...구제 제도 인지도 낮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날 반면, 해당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296만8,865건 중 중대 이상사례는 29만2,136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며 "올해 비율

은 12.9%로 최근 11년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06건에 대해 총 188억 6,500만 원이 지급됐다.

2022년 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30~40대는 각각 42.2%에 그치는 등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서율=김영목기자

우회전시
일시정지

운전중, 횡단중
스마트기기사용금지

방향지시등점등!
정지선 지키기

이륜차 및 킥보드
안전모 착용

안전벨트 착용

규정속도 준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해요!

전주시, 음식산업 발전 위해 전문가 머리 맞대

‘전주 음식산업 미래비전 수립 전문가포럼’ 개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20일 전주 음식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주 음식산업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음식산업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포럼은 전주 음식산업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금기형 (사)문화유산창의공간 대표는 ‘전주음식의 정체성 및 산업화·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전주음식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와 글로벌리더십 확보 전략을 제시하며,

전주가 ‘지속가능한 미식 생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 소장은 ‘미식산업 인프라 및 미식관광 콘텐츠’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전주의 음식문화와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미식관광 콘텐츠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미식관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컨트롤타워 강화 △관광·교육 인프라 확대 △미식관광 벨트와 △JK-푸드 세계화 △지역 유통 전략 확대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안했다.

이후 김남규 전북대학교 특임교수와 민동규 전주관광재단 사무국장, 오영호 한식진흥원 수석전문위원, 이우석 놀고먹이연구소 소장, 차경옥 서울특별시 중구청 경제관광정책협력관이 참여해 전

주 음식산업의 산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규 특임교수는 음식 콘텐츠별 특화거리 활성화와 전주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으며, 민동규 사무국장은 전주의 음식산업이 정책적 연계와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영호 연구위원은 전주 미식벨트 조성과 미식관광 전문기관 설립을 제안하며 글로벌 표준화 및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우석 소장은 전통과 관광이 결합된 체험형 미식관광 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경옥 협력관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감각의 음식 혁신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연구, 표준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강태안 가스트로투어 대표와 송호근 공주대학교 교수, 신동이 통일부장관실 비서관, 정명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 완산지부장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전주의 미식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주는 예로부터 한식의 본향이자 우리 고유의 미식문화를 가장 잘 간직해 온 도시이며, 이제는 전통의 가치를 넘어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 지속가능한 미식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공존하는 미식 창조 도시 전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025 태조 이성계 오목대 잔치 행사’ 개최

25일 전주한옥마을 일원 왜구 무찌른 후 전승기념 잔치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기 왜구를 무찌르고 승리를 나누던 역사가 조선왕조 본향인 전주에서 재현된다.

전주시는 오는 25일 오목대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2025 태조 이성계 오목대 잔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380년(고려 우왕 6년) 9월 태조 이성계가 남원 황산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승리의 기쁨을 전주한옥마을 오목대에서 나눴던 전통문화 행사다.

행사는 △황산대첩 무예퍼포먼스(경기 전 앞) △승전행렬(경기전-태조로-오목대)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



(오목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통무예, 판소리와 창작무용 등

이 곁들여 이성계와 이지란, 정몽주 등 주요 인물과 고려 병사, 풍물패, 고취대

등 140여명이 경기전 정문을 출발해 오목대에 이르게 된다.

이어 오목대에서 펼쳐지는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는 고구려와 오목대 잔치 및 연희마당, 포토타임 등 다채로운 한(韓)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기리는 이번 행사를 마음껏 즐기시고 한국의 문화를 느껴보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전통과 역사를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가결

천서영 의원 대표발의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아동보호구역운



영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유괴 등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태조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천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세심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마케팅 원스톱 지원 강화

소담스퀘어전주, 올해 4분기 소상공인 210개사 대상 디지털전환 지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전주를 통해 전북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4분기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판로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온라인 판로 지원 부문의 경우 △제품

소개페이지 제작 지원 △로테은 ‘소담스퀘어전주’ 기획관 운영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은 온라인 입점과 판로 확대에 필수적인 제품 사진 촬영과 기획, 연출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소담스퀘어전주는 또 기존 우체국쇼핑몰과 G마켓 입점 지원에 이어 이달부터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에 ‘소담스퀘어전주’ 전용 기획관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기획관에서는 소상공인 제품의 매출 확대를 위한 상시 할인쿠폰 제공과 메인 화면 배너 노출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소담스퀘어전주

가 보유한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해 정기적인 라이브 방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전주는 기획부터 촬영, 쇼호스트 섭외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경험하고 매출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소담스퀘어전주는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온라인 마케팅 환경에 대응하고, 스스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SNS 홍보단 운영 △온라인 판매·브랜딩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SNS홍보단은 ‘로컬 트립(Local trip)’

트렌드에 맞춰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소상공인 점포를 집중 홍보하게 되며, 소상공인이 스스로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고 라이브 방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소담스퀘어전주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전주시,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협업해 운영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으로, 도내 소상공인이자면 누구나 인프라 시설 이용과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판관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 ‘소담스퀘어전주’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제15회 2025 전주얼굴없는천사’ 축제 개최

24일~26일 노송동 일원 나눔의 미 시민화합퍼포먼스

불우이웃 돕기 위한 ‘2025 전주얼굴없는천사’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얼굴없는 천사축제는 올해로 15회째로서 지난 2000년도에 시작됐다.

특히 ‘2025 전주얼굴없는천사’ 축제는 익명의 기부자들의 숭고한 나눔정신을 기리며 매년 노송동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축제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이어지며 얼굴없는

천사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노동식) 주최로 진행된다.

축제 주요 내용에는 △천사저금통 퍼포먼스 △글·그림 시상식 △비빔밥 퍼포먼스 △노송동, 노송동, 중앙동, 풍납동, 인후1·2·3동, 진북동 총 7개 천사동 체험부스 △문화축제 △공연 △글·그림 수상작 전시회 등이 운영된다.

제15회 얼굴없는 천사축제는 나눔의 마음을 널리 알리며 시민·청소년 등의 화합퍼포먼스로 꾸며진 축제의 장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노인복지관장 소통간담회 진행

전북지회 소속 20개 기관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박희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장을 비롯한 도내 노인복지관장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노인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전북의 현실을 고려해 노인복지 인프라와 서비스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행정과 복지기관이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복지관의 역할이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건강관리, 정서 돌봄,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 복합 복지센터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현장의 변화 흐름도 공유됐다.

간담회에서는 복지관 운영 경험과 다양한 지역 사례들이 자유롭게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노인복지관이 지

역 어르신들의 생활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복지 수요의 변화, 이용 인구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복지관이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닌, 지역 어르신의 생활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관 운영 환경과 어르신 복지 수요 변화에 맞춰 도·시군·복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이어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완주소방서,소방공사감리현장 교차점검 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최근 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소방공사 감리현장 교차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형공사장의 부실설계·시공·감리 방지와 화재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지도점검 매뉴얼’에 근거해 진행됐다.

매뉴얼에는 △소방시설 분리도급 준수 △무등록(무면허) 공사 금지 △하도급 제한 △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현장배치 의무 등 10여 개 주요 점검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주덕진

소방서는 이를 기준으로 세밀히 확인했다.

이날 전주덕진·완주소방서의 건축민원 담당자들은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감리원 배치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실제 시공과 감리의 일치 여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서 “허위 착공신고나 기술자 자책 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내 주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도·감독 및 자율안전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응 80명 구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올 여름철(5월 15일~10월 15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80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357개소 24,374의 배수작업과 455건의 안전조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방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TF팀을 운영해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세부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상황대책반 상시 가동 체계를 구축했다.

또 생활안전대원 347명을 대상으로 체인톱 벌목 실습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양수기와 수중펌프 조작 훈련, 수난사고 대비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재해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도내

14개 시군 401개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와 협력해 댐 방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했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17차례 동안 총 1,679명이 비상근무에 투입됐다.

특히 9월 6~7일 전주의 군산 일대의 침수 피해 현장에서는 대형양수기와 구조장비를 투입해 배수 작업과 안전조치를 실시했고, 고립된 주민을 구명조끼와 로프를 활용해 구조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올 여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전국 최초 ‘생명존중 119’ 전광판 설치

‘언제나 생명존중’ 시민과 함께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가치 확산’ 위한 불빛이 전주 아바메도 비쳐진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전국 최초 ‘생명존중 119’ 전광판 설치를 청사 건물 상단에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전광판은 ‘생명존중’ 문구와 심장박동 리듬을 형상화한 디자인 속에 하트모양의 119로고를 담았다.

이는 ‘시민의 생명을 품고 지켜내는 119’라는 소방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멀리서도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대형 규모다.

심장박동 리듬을 따라 이어지는 조명 효과는 생명이 뛰는 듯한 생동감을 더해, “모든 시민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낮에는 선명한 디자인으로, 밤에는 따뜻한 조명으로 시민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일깨운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방위산업 첨단 기술력 선배

‘2025 대한민국 전력 지원체계 전시회’ 참가 기술협력 판로 확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 전시회(DUPEX KOREA 2025)’에 참가해 전북지역 방위산업의 첨단 기술력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

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 주요 정부기관이 후원하고 세계 34개국 550여개 글로벌 방산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非)무기체계 전문 전시회다. 전북도는 ‘K-방산, 첨단 신소재·신기술 실증 전초기지, 전북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한다. 1전북 홍보관에는 ㈜데크카본, 비나텍(주), ㈜다솔, 지리산한지(유), ㈜아이팝, 테라릭스(주), 하이즈복합재산업(주), ㈜한백

에어 등 도내 8개 우수 방산기업이 참여해 △전투기용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고출력 슈퍼커패시터 시스템 △소수연료전지 드론 △XR 기반 전술훈련 시스템 등 전북 방위산업의 혁신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는 전시 기간 중 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통해 드론·무인체계 중심의 전북 방산 생태계 구축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민·군 비즈니스 미팅 및 투자상담회를 병행

해 실질적인 기술협력과 판로 개척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전북은 첨단소재와 복합소재 분야의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의 최적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전북 방위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내 기업의 국방조달 시장 진입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북전주농협, 지역 배 50톤 대만 수출

올해 첫 대만항 매년 물량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20일 북전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배 약 50톤을 대만으로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2025년 첫 대만항 물량으로 본격적인 해외 출하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번 수출 배는 북전주농협 관내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한

환경 속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과육이 아삭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만 현지에서는 한국산 배의 품질과 신뢰도가 높아, 매년 수출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우광 조합장은 “우리 지역 배가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AI부터 로봇까지 ‘제19회 전북과학축전’ 성료

110여개 프로그램 운영 호응 혁신제품 체험 기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그간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청소년의 체험관에서 개최되던 과학축전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공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행사장 전역에 설치된 110여개의 과학체험부스에서는 일상 속 과학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드론·로봇 실습, 환경·에너지 실습, 화학·물리 원리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또 전북의 주력산업인 AI, 바이오, 이차전지, 농생명 분야와 연계한 ‘전북핵

심산업관’을 운영하며 지역 산업의 연구성과와 도내 기업 혁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의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피지컬AI 창의과학탐험대 로봇경진대회를 비롯해 사이언스 마이크, 에그드랍 챌린지 등 다양한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심을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가 됐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사이언스 일루전, 버블랩쇼: 공기의 마법, 솜사탕 퍼포먼스,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마술공연 등이 펼쳐져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과학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 이번 축전에서는 현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400여



개의 과학꾸러미(체험키트) 나눔 활동도 진행됐다. 제19회 전북과학축전은 2만여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김광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피지컬AI 창의과학탐험대 우승팀

에게 시상했다. 이어 “과학의 발전은 오늘 이 자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전북과학축전이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창의력을 키우는 소중한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신협발전세미나’ 개최 과거·현재·미래 조명

신협연구소는 ‘신협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다(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redit Unions)’ 주제로 2025년 ‘신협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협의 성장 요인과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신협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적정 자산 규모와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AI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협의 지속가능한 경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난 17일 신협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대전 신협중앙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동국대학교 현정환 교수가 ‘신협 특성에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 제시’를 주제로 신협 자산 구성 현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 경성대학교 김성태 교수가 ‘신협의 성장요인과 적정 자산 규모’를 주제로 신협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정 자산 규모를 제시했다. 이후 경성국립대학교 윤상필 교수는 ‘로컬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협의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 소멸 시대에 로컬창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신협이 상생할 수 있을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명대학교 나형중 교수는 ‘신협의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신협을 위한 네 가지 AI 예측 모델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와 적용 방향을 설명했다. 윤성근 신협중앙회 기획이사장은 “이번 ‘신협발전세미나’는 신협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고령화, 저성장, 지역 소멸 등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중앙회와 조합이 함께 지혜를 모아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논산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대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원예·특용작물 분야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7곳을 선정했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개발하고 육성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품종을 재배·출하하며 우리 품종의 재배를 확대하고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는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대상(국무총리상)은 충남 논산의 ‘논

산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수상했다.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으로는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아산시배연구회(충청남도 아산시) △영천군내신품종사과연구회(경상북도 영천시) △고창군수박연합회(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에는 △연천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경기도 연천군) △청주시딸기연구회(충청북도 청주시) △익산딸기연구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받았다. 올해 대상을 받은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1999년 조직)은 2014년 전

국 최초로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해 체계적인 생산·유통관리와 품질 향상에 힘쓰며 당도 높은 수박을 생산하고 있다. 수박 가격 하락 시 자조금을 활용해 일정 금액을 보전함으로써 회원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차별 정산제’를 도입해 생산자 간 건전한 경쟁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 논산농업대학 수박학과 개설을 적극적으로 제안, 올해부터 신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최고기술농업인’으로 선정된 연구회원들을 주축으로 후계농에

게 실질적 재배 기술과 경영 역량을 지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복형 자동보온시스템, 높은 두둑 조성, 토양 분석 처방 후 시비 관리 등 세 기술 도입·확산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품종 육성·도입을 위한 재배 실증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확대 기반을 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의 우수 사례를 거울삼아 국내 육성 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우수성 홍보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LX,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발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11차례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노동조합이 결렬을 선언하면서 장외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정부 재정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형 공공기관으로서 최근 지적측량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2023년 716억(매출액 5357억), 2024년 822억(매출액 5140억)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매출은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로 영업적자본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과 유류자산 매각 등을 통

해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어명소 사장 취임 직후 2023년 11월 30일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4년 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 매출 확대 등에 관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600억원 내외, 내년에는 400억원 내외로 영업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론 소통하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성장사다리 선도기업(주)팜조아,누룽지2만봉기탁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사다리 선도기업인 (주)팜조아 농업회사법인이 따뜻한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주)팜조아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3천만 원 상당의 누룽지 2만봉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품은 도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근 코스트코와 계약해 지역 경제산업 내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진 (주)팜조아는 2015년 설립 이후 배, 밀키

트, 소분고기 등 다양한 제품을 10년째 꾸준히 사회에 공헌하며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황은경 대표는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주)팜조아의 정성과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는 앞으로도 기업이 성장하고 도민이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국제종자박람회, 22~24일 김제서 개최

종자산업 중요성·가치 알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제시와 함께 ‘2025 국제종자박람회’를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종자산업진흥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씨앗 하나, 세상을 바꾸는 힘(One seed, Change the world)’을 주제로 열리며, 종자산업의 중요성과 미래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2017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9회를 맞은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박람회로, 종자산업의 기술 교류와 수출 확대를 견인해왔다.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7개 기업·기관·단체가 참가해 482개 품종을 선보이며, 80억 원 이상의 수출 계약을 목표한다. 박람회장은 전시포, 산업관, 온실, 홍보관 등으로 구성돼 작물의 실물 전시

와 산업 전시가 함께 이뤄진다. 전시포에서는 국내외의 종자기업이 개발한 우수 품종을 노지와 비닐온실에 전시해 관람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관에서는 종자 관련 전후방 산업과 최신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B2B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컨퍼런스·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행사를 통해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부대행사로는 고구마 수확체험, 화분 만들기, 스탬프 투어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된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2025 국제종자박람회는 종자산업 발전과 글로벌 교류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종자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고교생 흡연 징계에 학부모 “내가 허락했다”

교원단체 “학생 생활 지도 방해…교육 현장 근본적인 위기”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흡연을 한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 A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촬영해 해당 학교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이에 인성인권부장은 해당 학생들을 면담해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한 학생의 학부모가 인성인권부장에 전화를 걸어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학부모가 허락했으니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진 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 “학교를 얹어주겠다” 등의 말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는 학생을 생활지도한 교사가 몇 학년인지를 묻는 등 개인 신상을 집요하게 물었고, “조만간 한번 뵙게요”라는 말로 사실상 보복을 암시했다.

이후 그는 교장실을 직접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혐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사태는 악화했다.

이 사건 후 해당 인성인권부장은 정

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학교 전체에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사진을 찍은 A씨 역시 시정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해당 학부모는 과거에도 자녀가 재학 중인 전북의 다른 학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전북지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호할 것”과 함께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무고한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이날 입장을 밝히고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부모의 위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노조는 이어 “해당 학교는 학생 생활 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입삼는 해당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과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스포츠클럽, 전국체전 모두 입상 쾌거

태권도 선수단 13위 차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4~18일까지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태권도 종목 경기를 진행했다.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한 전북 태권도선수단은 금 1(이소영, 전주스포츠클럽) 은 1(이을, 군산동고) 동 4(김근영-전북체고, 손태환-한체대, 예한병-전주대, 정유나-우석대) 등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주스포츠클럽에서 훈련한 여고부 -67kg급 이소영 선수가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전주스포츠클럽은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1 동 1(-6kg 문지담 1위 / -4kg 정희수 3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모두 우승 입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전주스포츠클럽 태권도 지도자인 문형효 코치는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노력의 결과가 전국체육대회 1위, 전국소년체육대회 1위와 3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선수들의 사기가 충만하고 지도자와 선수들 간 서로 신뢰와 믿음의 계단을 쌓아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엘리트 선수의 산실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자신감과 의욕을 보였다.

이소영(전주스포츠클럽)선수는 “문형효 코치의 평소 훈련과 지도를 성실하게 소화하며 나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1위를 했다”며 “국가대표의 꿈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중등 교원 학생평가 신뢰 회복·전문성 강화

성취평가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등 교원 성취평가제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평가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질 제고에 나섰다.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라는 평가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하는 평가제도로, 학생이 성취한 내용과 정도를 사전에 설정한 준거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성취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25 중등 성취평가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 교사로 구성된 중등 성취평가 모니터링단 4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학교 현장의 성취평가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7월 광주, 전남, 전북 연합으로

진행한 역량강화 기본 연수에 이어 지난 14일과 18일에는 대면방식으로 심화 연수와 현장기반 실습형 연수를 진행했다.

심화 연수에서는 △성취평가 모니터링 지표의 이해와 분석 △사례 기반 실습을, 현장기반 실습형 연수에서는 △단위학교의 성취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 △모니터링 실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강사로는 서원석(전주솔네고) 교사,

박지은(경북 상모고) 수석교사 등이 참여해 성취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성취평가 모니터링단이 학교 성취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위학교의 평가 내실화 및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전북현대, 파트너데일로 하나되다

2천여 명 전북대 구성원 응원 속 10번째 우승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단장 이도현)이 지난 주말 ‘파트너데이’를 통해 하나 된 열정을 보여줬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수원FC와의 ‘2025 하나은행 K리그1 33라운드’ 경기가 전북대학교 파트너데일로 지정되면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2,000여 명의 전북대 구성원들이 대거 경기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쳤다.

뜨거운 응원 열기는 경기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사전 행사로 전북대 홍보 영상 상영됐으며, 개교 78주년을 상징하는 등번호 78번을 단 유니폼을 입은 양



오봉 총장과 구민기 총학생회장이 시축을 맡아 경기 시작을 알렸다.

전북대 구성원들은 전북현대의 상징인 녹색 유니폼을 맞춰 착용한 채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열정적인 응원 문화를

선보였다.

이날 전북현대네는 폼파뇨와 티아고 선수의 연속골로 2대 0 승리를 거둬 조기 우승을 확정지으며 전북대학교 파트너데이에 기쁨을 더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학부모지원센터 ‘AI와 함께하는 캠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오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군산·익산·남원·정읍 등 5개 권역에서 ‘2025년 AI(AI)와 함께하는 캠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캠프는 ‘AI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진로·학습 탐험’이라는 부제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AI를 활용해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주도학습 계획을 세워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 기반 성향·강점 진단 △가족 단위 AI 게임 △자기주도학습 설계 실습 등이 있다.

학부모지원센터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가족형 진로캠프는 미래교육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 5급 승진대상자 22명 발표

2026년 1월 이후 임용 발령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5급 승진대상자 22명(교육행정 21명, 식품위생 1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5급 승진대상자 22명은 역량평가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발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보고서 평가, 업무실적 및 면접평가, 업무능력 우수자 평가를 진행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5급 승진대상자 선정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반영한 선발”이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

발했다”고 말했다.

선정된 5급 승진대상자는 오는 11월 3일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4주간 기본교육을 거쳐 내년 1월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5급 승진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육행정직렬 강세지(총무과), 강여경(위도고등학교), 고수미(정경과), 김한철(학생해양수련원), 김형진(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박인화(전주솔네고등학교), 백운기(한울학교), 소정현(부안고등학교), 손은정(전주화정초등학교), 송구(정읍고등학교), 송효미(미령고등학교), 오은진(고산고등학교), 유병현(함열고등학교), 이천미(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임인옥(예산과), 전태종(전주유화학교), 정원탁(도의회사무처), 정유진(전주고등학교), 채윤경(재무과), 최판식(총무과), 허수진(예산과) △식품위생직렬 한근영(익산교육지원청) 총 22명이다.

/최성민 기자

환절기 감기예방법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감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온도와 습도 적절히유지
온도 20~22℃, 습도 50~60%



외출 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30초이상 손 씻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군산시, 지역 예술인·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예술인·예술단체 간의 교류를 위해 군산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해, 향후 재단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상은 최근 군산시에서 전시·공연·창작 활동 또는 문화예술 관련 공모·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단체와 군산시 소재 문화예술공간이다.

등록을 원하는 경우,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www.gunsancf.or.kr), 전자우편(ssaesol@gmail.com)으로 제출한다. 혹은 바로가기 부호(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예술인들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는 열린 참여형 시스템을 운영해, 참여도를 높이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알리고 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예술인·예술단체가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매출 채권 압류…채납 지방세 징수

군산시가 지방세 채납액의 징수를 위해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 50만 원 이상 채납자이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에 일제조사를 요청한 결과 정산금이 확인된 채납자 15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지정, 압류 예고 후 납세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채납자의 숨겨둔 수익·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적극적인 채납관리 및 새로운 채권 발굴을 통해 채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농·축협, 구절초 축제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정읍시와 지역 농·축협이 지난 18일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와 농·축협은 축제를 찾은 수많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부제 동참을 독려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정읍의 대표 가을 축제 현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박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순기 NH농협 정읍시지부장과 관내 8개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떡과 식혜 등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며 기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정읍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고, 정읍의 발전에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출향인,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기부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대도시권 도약 발판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핵심사업추진탄력기대

익산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로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광역경제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의 대광법 개정안 공포에 이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익산시를 포함한 전주·군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익산시는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

터 인입선 구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은 익산~전주~군산~새만금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한층 원활히 해 광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이 조성되면 새만금과 내륙을 잇는 여객·화물 병용 철도수송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K-식품벨트’ 완성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경제권을 주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영역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군산 ‘나라 On 자활 상생일터’ 개소

옛 흥남파출소 리모델링 전북서 세 번째로 열려

일터(부산 사상구)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의 유휴 국유재산을 이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군산 일터는 전북에서 전주시, 임실군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열었으며, 군산시 강임준 시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정훈 사장, 전주시지도,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가 협력해 취약계층 자활사업장으로 조성됐다.

또한, 캠코에서는 (구) 흥남파출소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 및 기부금 1천만 원도 지원했다.

전북권을 대상으로 하는 △KTX익산역 시설개선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사문화벨트 조성 △산재전문병원 건립 △제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국가예산 사업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익산시의 전주권이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관련 국가예산 사업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사 문화제’ 25~26일 펼쳐져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서 개최

현존 최고(最古)의 백제가요 ‘정읍사’를 기리는 제36회 정읍사 문화제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정읍사 문화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는 제18회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열리는 데다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돼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정읍시와 정읍사문화재단·제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채수이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 기념식, 축하공연, 정읍사가요제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즐길 거리를 새롭게 보강했다.

축제의 열기를 더할 화려한 공연도 준비됐다. 25일 기념식 축하공연에는 설운도·김다현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꾸민다. 26일에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본선 진출자가 경연을 펼치는 ‘정읍사가요제’가 열리며, 초청가수 송가인·이미주가 수준 높은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문화제를 마련했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리고, 정읍의 위상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무녀도서 어촌 섬마을 장터 연다

군산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무녀도 오토캠핑장 주차장 일원에서 어촌 섬마을 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장터는 지역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자 무녀도어촌계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행사이기도 하다.

특히 행사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군산 어촌만의 특색을 살리고, 섬마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에는 바지락, 꽃게장, 반건조 생선, 각종 젓갈류 등 섬마을 특산물과 수산물이 판매되고, 해물 부침개, 꽃게튀김, 소라무침, 해물꼬치, 갑오징

어 숙회 등 풍성한 먹거리로 구성된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갯벌 체험, 섬마을 보물찾기, 추억의 놀이존, 팝콘·술사탕 부스 등 가족 단위 참가자와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더할 특별한 체험거리도 더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이번 행사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군산의 고품질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또한 군산 수산물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넘어 서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 화합의 장, 어촌문화화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내달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

제도 정착·유기동물 발생 예방

정읍시가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등록 이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농업용 굴삭기 임대료 지원

익산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3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임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논·밭 배수로 정비, 과수원 개간 등 굴삭 작업이 필요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굴삭기를 직접 구입해 임대하는 대신 민간 임대업체를 활용해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식은 농가의 실제 수요를 충실히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3톤 미만 굴삭기 조정 면허증을 소유한 자로, 3톤 미만 굴삭기 임대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월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용 굴삭기 임대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효율적인 농작업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22일 ‘주얼펠리스 보석 축제’ 개최

54개 업체 참여 전시판매 보석산업 경쟁력가치 제고

보석 산업 중심지 익산에서形形色색 아름다운 보석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오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왕궁면 주얼펠리스와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2025 주얼펠리스 보석 가을대축제’가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주얼펠리스협의회(회장 송재규)가 주관하고,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축제에는 주얼펠리스 내 54개 업체가 참여해 다채로운 전시와 판매,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보석대축제는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형 산업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화려하고 진귀한 보석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24K와 다이아

몬드를 제외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30% 특별할인 행사가 진행돼 평소 구입속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소유한 보석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보석리세팅’을 비롯해 보석 가공 시연, 체험 부스, 익산보석산업 사진 기록전, 행운의 탄생석 특별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축제가 진행되는 보석테마관광지는 보석박물관과 실내·외 놀이체험시설 다이노키즈월드가 있어 부모부터 자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가을 나들이도 즐길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주얼펠리스협의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얼펠리스 보석대축제는 익산이 지닌 보석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동시에 알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가을 정취 속에서 시민과 관광



객 모두가 반짝이는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얼펠리스 보석대축제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며,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익산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인구주택총조사 적극 참여 당부

22일~11월 18일까지 1만 6천여 가구 대상 실시

정읍시가 오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인 이번 조사는 관내 1만 6000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조사 기준 시점 현재 정읍시 관내 371개 표본조사구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를 파악한다.

조사 항목은 인구·가구·주택 분야에 대한 55개 항목이다.

시는 조사 대상인 1만 6100가구에 지난 10월 중순 ‘총조사 대상 가구’로 명시된 조사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조사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22일부터 인터넷(PC·모바일)이나 전화로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 조사를 시작한다.

이 기간에도 인터넷이나 전화 조사

를 계속해서 가능하다.

조사를 마친 가구에는 추첨을 통해

5만원권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주화 또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100년이 되는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평가, 학술 연구·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지역주민이자 이웃인 통계조사원에 따뜻한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인터넷·전화 조사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정읍시 통계조사 종합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시, 드론·로봇 미래산업 중심지 부상

19일 남원국제드론제전 성료
국내외 신기술·체험 축제 융합
청소년·가족 참여형 축제로 발전

남원시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국내 드론·로봇 산업의 새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남원시 공동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와 항공안전기술원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하늘과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 아래 산업, 문화, 체험, 교육이 융합된 복합형 축제로 개최됐다.

축제 기간 동안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는 드론·로봇 스포츠대회, 산업 전시, 청소년 체험, 가족공연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행사장 주변 상권과 숙박시설에도 활기가 돌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국토부장관배 DFL 드론레이싱대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남원시>

회에 20여개국 50여명이 참가했으며 G-PRC 드론로봇대전과 시민참여형 드론 수색·방제대회는 현장형 기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드론·로봇 전시관에는 국내 8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자율비행, 배송, 영상촬영,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며 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남원교육지원청 주관의 과학축전 및 수학체험교실, 각별 청소년 토크콘서

트, 핑크퐁 팝업 놀이터, 글로컬 푸드 페스티벌 등은 남원의 '참여형 가족축제' 이미지를 확립하며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전했다.

남원시는 제전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국제 드론스포츠 챔피언십 정례화, 드론실증 연계 기업유치 프로그램, 청소년 드론캠프 확대 운영 등 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보부상 마켓'으로 들썩

90여개 마켓 1만 3,000여 명 방문
로컬푸드·핸드메이드 등 향연

완주군이 '2025년 보부상 with 완주 농부마켓'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8일과 19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 90여 개의 마켓이 참여하고 1만 3,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과실생산업동조합, 완주농가 등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먹거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핸드메이드 의류, 밀키트, 생활소품 등 다양한 수제품이 판매됐다.

특히 행사 양일간 선착순 100명에게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돼, 행사장 입구에서 '2미터 오픈런'이 펼쳐지는 등 뜨거운 현장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완주군의 신선한 농특산물 직거래장과 가공 식품 등을 전국의 방문



완주군은 지난 18-19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보부상 마켓을 개최했다. <사진=완주군>

객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연계행사로는 '스테이 삼례 런케이션 투어'를 비롯해 삼례책마을에서 열린 북플리마켓(중고책·어린이 장난감 판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군은 행사 전 완주경찰서, 완주소방

서, 완주군지역자활재단,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우석대학교, 자원봉사자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통통제와 안전 점검을 실시,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또한 삼례방촌마을 등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속에 '안전하고 친절한 완주'의 이미지를 알렸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국제도예캠프, 국내외 작가 116명 참가 '성황'

19일 성료 남원도자문화매력 알리기
전시·물레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센터가 주관한 제14회 남원국제도예캠프가 지난 19일 폐막했다.

남원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도자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된 제14회 남원국제도예캠프는 '흙에서 피어나는 도예의 숨결 남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도예캠프는 지난 17일날 개막했으며,

개막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남원시의회의 의장 등 주요내빈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작가 116명이 참여하여 전시회와 물레경진대회 등 8개의 다양한 도예 프로그램을 운영해 남원 도자 문화의 매력을 선보였다.

남원국제도예캠프의 대미를 장식한 물레경진대회에는 전국 도예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캠프 참가자, 일반 도예작가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대상은 단국대학교 김성현, 최우수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윤준상, 우수

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준혁, 단국대학교 배영원이 각각 수상했다.

국제도예캠프를 준비한 김광길 운영위원장은 "이번 캠프가 국내외 도예가 분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남원 도자문화의 역사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심수관가의 본향이자 도자의 고장인 남원에서 국제도예캠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상현 前 도의회 부의장, 남원시의원 출마 선언

민생복지농업교육비전 제시
송전탑백지화 등 해결 의지



이상현 前부의장

이상현 전)전북도의회 부의장이 내년 6월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도동·향교지역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하며, 남원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상현 출마예정자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민생경제는 든든하게, 복지는 따뜻하게, 농업은 활기차게, 교육은 안전하게'라는 4대 핵심 비전을 제시하며 "남원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는 믿을직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북도의회원으로 12년, 남원시장에 두 차례 도전하며 남원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지만, 돌이켜보면 제 욕심이 앞섰던 순간도 있었다"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

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서남대학교 활성화, 공공의료대학원 및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송전탑 건설 백지화 등 남원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해법을 만드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 토박이인 이상현 출마예정자는 남원시 주천면 용담 출생으로, 남원중앙초·용성중·남원고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3선의원으로 활동하며 부의장, 교육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남원=정하복기자

완주군의회 행감특위 출범...이경에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에 최광호 위원
11월 정례회 맞춤 감사 진행



이경에 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

완주군의의회는 20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에 위원을, 부위원장에 최광호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96회 완주군의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 실시될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49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완주군의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감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및 행정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경에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장류축제서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

농심천심 운동 확산 '앞장'
추첨 이벤트 등 행사 다채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순창군에서 개최한 '제20회 순창장류축제'에서 관내 농협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천심 운동' 확산에도 앞장섰다.

축제 기간 동안 3만원 이상 '장류식품'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순창 우수 농산물을 제공하고, 축제장을 찾은 모든 방문객에도 즉석 추첨, 닥트 게임(한궁) 등을 통한 농산물 제공 이벤트도 진행해 농산물 홍보는 물론 축제의 흥행에도 기여했다.

군지부는 행사에서 순창농협 사과

대추, 동계농협 햅쌀 및 옥광밤, 구립농협 눈꽃복숭아, 서순창농협 복분자즙과 동계쌀을 원료로한 순창 발효쌀 3종 등 순창군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벽돌형 포장쌀, 쌀과자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며 쌀소비 촉진 캠페인도 전개했다.

구립농협(조합장 김순용)은 눈꽃복숭아 시식, 예약판매를 함께 하며 방문객 눈길을 끌었다.

신종철 지부장은 "순창 전통 발효식품과 우수 농산물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농협으로서 순창 장류식품이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농협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노정희 작가 초대전

기획전시실서 내달 21일까지
전통 정서 현대적 해석 지역 작가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21일부터 노정희 작가 초대전 '시간 속에서 - 만남, 내일은 희망'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창작의 무대를 열어주며, 완주군민이 예술을 통해 작가의 메시지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여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전통적인 한국 의적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노정희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그의 작

품 속에는 생명의 절정과 환희, 그리고 미세한 생명에서 우주로 확장되는 순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작가는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이 위로와 희망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노정희 작가는 완주군에 거주하며 국내에서 330여 회 이상의 전시를 이어왔고, 현재 '아뜰리에 AUL'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완주의 예술가로서 군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의적 전시실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노정희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그의 작

/완주=김명곤기자



남원국제드론제전 한복체험
'케데헌 열풍' 타고 큰 인기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기간 동안 관광객 안내와 함께 진행된 한복체험 부스가 축제장을 찾은 가족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한복체험 부스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데헌 컨셉으로 기획해, 참가자들이 무료로 한복체험과 전통 갖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꼬마갓과 풍선이 기념품으로 제공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으며, 밝은 웃음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북적였다.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된 한복체험 부스는 가족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여형 가족 축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생활예술인 창작열
전시로 꽃 피다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네트워크(이하 완주생문동)가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1오는 30일까지 완주군 문화예술단체 전시실에서 제14회 완주생문동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2025 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완주생문동과 선정된 동호회가 공동 주관한다.

전시 작품은 △U도자기(도예) △꿈지락동아리(토탈공예) △차차(토탈공예) △투맘(소이퀼트) △힐링레이크(원예) 동호회의 다양한 공예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시된 작품들은 지역 내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이상배 완주생문동 이사장은 "취미 활동으로 시작한 동호회가 여가 활용과 삶의 활력소가 되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완주군민들이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성장하는 완주의 새로운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 완주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사랑드리봉사회
환경정화 캠페인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신봉지구 복합타운 일원에서는 사랑드리봉사회(회장 남만우)와 함께 하는 '제2회 초록발걸음 행사'가 지난 18일 진행됐다.

관내 산단 임직원 및 자영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구성된 이 봉사단은 환경정화활동은 물론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는 기부활동 등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자연과 지역을 사랑하는 가족 단위 참여로 100여 명이 모여 아이들을 위한 지구환경퍼즐 만들기, 야광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코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함께 실천하고자 행사장 주변을 돌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후 푸진한 행운권 추첨과 평소 지역 봉사에 숭신수범한 오경희, 김동훈 회원에게 표창장 수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장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사랑드리봉사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봉사를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환경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제29회 추령장승축제 기념 특별전시 개최

솃대·장승·봉황3종 전시 한자리
회화·목공예·사진 융합예술 선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예술 전시회가 내장산 자락 추령마을에서 열린다.

제29회 추령장승축제를 기념하는 '3인 3색 3종 초대전'이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추령마을 문화센터인 추령문화촌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솃대, 장승, 봉황이라는 전통 상징 요소를 중심으로 한 회화·목공예·사진 등 3개 분야의 융합 전시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선보인다.

전시에는 지난 8월 열린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에 출품되었던 솃대 작품 33점을 비롯해, 봉황 작가 신경미의 100호 대작 11점을 포함한 봉황 회화 33점이 전시되어 장쾌한 스케일과 상징성으로 깊은 인상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장승 명인이자 솃대 목공예 장인인 추령장승촌장 윤흥관 작가의 목공예 작품과 봉황 회화의 대가 신경미 작가의 대형 회화 작품이 어우러지며, 국내 최고 수준의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아울러 추령장승축제 30년의 발자취를 기록한 장승 사진과 함께, 현대적 해학과 익살, 조형미가 돋보이는 이익돈 작가의 퓨전 장승 사진전도 함께 열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색다른 예술적 분위기를 선사한다. 솃대, 목공예,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가을 바람을 타고 추령 하늘을 수놓는다.

전시 오픈닝은 오는 25일 오후 6시 추령문화촌에서 진행되며, 오후 7시부터는 식사와 주안상을 곁들인 작은 음악회가 마련된다. 음악회에는 최재철, 초암, 금보라, 방실이 등 대중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식품, 익산 남중동에 두부 총 156모 기탁

익산시 남중동은 이웃을 위한 든든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장수식품(김호정 대표)’은 지난 7월부터 매주 남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두부를 기탁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두부 총 156모(80만 원 상당)를 전달했으며, 이달에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 중이다.

장수식품은 익산장에서 두부를 비롯해 누룽지, 된장, 참기름, 들기름 등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이 운영하는 여수와 인천 지점에서도 각 지역 주민을 위해 기탁을 실천하는 등 나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호정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 만든 따뜻한 두부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온정 담은 두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 관촌면 새마을부녀회, 사랑 愛 고추장 나눔 실시

임실 관촌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7일 독거노인, 장애인, 청장년 1인 가구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 愛 고추장 나눔 사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및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추장 100kg을 직접 담가 저소득 가정 100가구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고 애로점을 듣고 살펴 드렸다.

관촌마을 이00 씨는 “혼자 살면서 입맛 없을 때 먹는 고추장은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음식”이라며 “옛고향의 맛에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금자 부녀회장은 “정성과 사랑으로 담긴 고추장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밀반찬 조리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삶 영위에 기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지현 관촌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고 사랑으로 행복을 전하는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관심과 온정을 전할 수 있는 관촌면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마이산도립공원-국립공원, ‘바다의 시작’ 캠페인 실시

도립공원 중 최초 실시

진안군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16일 마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바다의 시작’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 개최된 ‘호남권 자연공원 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국립공원-도립공원 공동 협력사업으로 전북·전남도립공원까지 확대 운영에 따른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우수관을 통해 해양으로 흘러가는 쓰레

기를 차단하고, 해양오염의 근본 원인을 육상에서부터 예방하자는 취지로 국립공원공단이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내장산·무등산·동부사무소 직원, 자원봉사자 등 25명이 참여해 마이산도립공원 내 우수관 주변의 담배꽂초와 쓰레기, 낙엽 등을 청소하고, 20개소의 우수관 바닥에 ‘바다의 시작’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종이 피켓을 활용해 해양쓰레기 저감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16일 마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바다의 시작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진안군가족센터, ‘온데이(ON-DAY)’ 행사 성료

진안군가족센터(센터장 박주철)는 지난 17일 센터 일원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행사 ‘가족센터 온데이(ON-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웃고 소통하는 시간’을 주제로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특히 이번 ‘온데이’는 할로윈 시즌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할로윈 분장 체험(페이스 스티커·코스튬) △거미 사랑·과자 만들기 체험 △템텐싱어 공연 △가족 포토존 촬영 이벤트 △감성 플라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 수지초, G-PRC 드론 로봇 대회서 금은동 휩쓸다

전교생 32명 참가

수지초등학교(교장 사향희)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원 G-PRC 드론·로봇 대회’에 전교생 32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참가에는 남원시 지원사업인 ‘2025 찾아가는 드론교실’과 방과후 ‘드론비행’ 프로그램, 2학기 ‘로봇과학·드론교실’ 선택반 운영 등이 밑바탕이 됐다.

첫날인 17일 로봇과학 분야 ‘스피드터치 커넥트’ 부문에는 2~6학년 16명이 출전해 금상 4명, 은상 2명, 동상 6명, 장려상 4명 등 전원이 수상했다. 드론 부문 ‘스피드드론’에는 1~5학년 16명이 참가해 금상 2명, 은상 4명, 동상 4명, 장려상 6명이 수상했다. 둘째 날 열린 남원시 예선 전국대회에서도 로봇과학 부문 3명이 출전해 특상 2명, 동상 1명, 드론 부문 10명이 출전해 특상 2명, 은상 1명, 동상 2명, 장려상 5명이 각각 입상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불링홀릭 패밀리’ 개최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가족 불링대회 ‘2025 완주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불링홀릭 패밀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열린 행사에는 가족 간 소통과 협동심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5가족, 30여 명이 참가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불링 실력보다는 가족 간의 응원과 협력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고창군 심원면 김상섭씨, 소금·라면 기부

김상섭씨, 소외된 이웃 챙기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고창군 심원면 염전마을 김상섭씨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소금(20kg) 52포, 라면5박스를 기탁해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

김상섭씨는 평소에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상섭씨는 “염전에서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생산한 소금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준형 고창군 심원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금은 꼭 필요한 이웃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 산외면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 60가구에 반찬 전달

정읍시 산외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양양임)가 지난 17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이날 부녀회원 3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정성껏 만든 밀반찬을 60여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함께 식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밀반찬을 조리했다. 이들은 손수 만든 반찬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뒤, 관내 취약계층 60여 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물었다.

/정읍=김정인 기자

[알림]

제10회 (사)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보존협회전

기간 : 10.28~11.2

장소 :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1관

연락처 : 010-3655-7567

가을철 산불 예방 수칙



산림, 인접한 곳에서
농부산물및 쓰레기
소각 금지



허용된 지역외
취사및 야행 금지



산림 내 흡연금지
성냥,라이터등 소지 금지



뉴스특보
건조 특보
건조 특보 시
입산 자제 하기

〈一事一言〉



북한 핵위협 대응하는 무시무시한 우리 무기체계(2)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현무-5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8~9톤이며 폭발력은 현재 TNT 약 11톤을 상회하지만 14톤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동아일보>(2023.12.27.) 보도가 있었다. 폭발력으로도 본다면, 현무-5가 아무리 세계 최다수준의 고위력 재래식탄두라고 하지만, 화산-31형 핵탄두보다 1/1,000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직하다. 하지만 이는 미사일 탄두의 폭발력을 가리키는 것일 뿐 살상력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

폭발력(Yield)은 폭탄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괴적 인 힘의 정도를 가리킨다. 살상력(Lethality)은 무기가 목표물(주로 사람)에 피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폭발력·파편·충격파 등 다양한 요소의 결과다. 실제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은 단순히 폭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상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고위력 재래식무기로도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다.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핵심수단이자 유력한 핵 억제수단이다. 현무-5의 탄두중량은 최대 9톤이며, 여기에 집속탄(cluster munition)을 장착할 경우 넓은 면적에 걸쳐 초도화가 가능하다.

집속탄금지협약(CCM)에서 20kg 미만의 폭발성 자탄을 포함하는 무기를 집속탄으로 정의한다. 현무-5에 탑재 가능한 집속탄은 설계와 효율에 따라 무게 2kg 자탄을 최대 4000개, 도합 8000kg까지 탑재할 수 있다.

집속탄은 모탄(미사일 탄두)이 목표 상공에서 폭발하여 수많은 소형 자탄(sub-munition)을 살포하고, 각 자탄이 분산되어 넓은 지역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살상력을 극대화한다. 집속탄에는 고풍화약을 사용하거나 화학작용제를 사용한다. 실제적인 집속탄의 살상 효과는 고도, 풍속, 자탄의 분산 패턴에 따라 달라지고 자탄 간에 살상면적의 중첩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탑재된 수천 개의 자탄이 최적의 간격으로 지면에 고르게 분산되어 살상 면적이 중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최대 살상면적(Atotal)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첫 째는 155mm 포탄 용 M483A1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약(DPICM)의 자탄인 M42/M46을 사용할 경우다. 인마살상이 가능한 DPICM의 탄두중량은 40kg, 자탄 1개 무게는 약 0.24kg이므로 집속탄 1개당 자탄 160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다. DPICM 자탄의 유효살상반경은 7m이기 때문에, 살상면적은 2만 4630㎡다. 이는 면적 7140㎡(TIFA 규격, 가로 105m, 세로 68m)인 축구장 3.5개 면적의 살상효과를 나타낸다. 현무-4의 탄두중량을 2~4톤으로

보면, 이는 축구장 175~350개 면적의 살상효과를 갖는 것이 된다.

둘째는 사린(GB), VX와 같은 고위발성 신경작용제를 장착한 집속탄을 탑재할 경우 더 큰 살상효과를 발휘한다. M270 다연장로켓 발사시스템(MLRS)에 탑재되는 집속탄(M26)은 탄두중량 156kg에 자탄 개수가 644발이며,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해 추진체 무게를 늘리고 자탄을 줄인 M26A1은 자산 개수가 518개다. ATACMS 미사일(블록 1A)의 집속탄 모델인 MGM-140A의 경우 탄두중량이 560kg일 때 0.58kg인 자탄의 개수는 950개이며, 사거리 연장을 위해 탄두중량을 160kg로 줄이게 되면 자탄은 275발 탑재할 수 있다.

독성 신경가스의 살상 범위는 가스의 종류, 살포량, 기상 조건(바람, 온도), 살포 방식(에어로졸, 증기) 및 지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린가스 1.2kg을 살포하면 반경 33m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으며, 액체 노출 땀 적은 양(1~10mL)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 군사적 상황에서 방호조치가 없는 경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량살포 때는 수십 km까지 확산될 수 있다. VX는 사린 가스보다도 100배 가량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TACMS(블록 1A)를 기준으로 집속탄을 장착한 현무-5의 살상력을 계산해 보자. 현무-5의 공

식 사거리는 300km로 탄도중량을 줄이지 않아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집속탄에 8000kg의 자탄을 탑재한다고 가정하자. 자탄 1개의 무게를 2kg라고 할 때, 최대 4000개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다. 고풍화약의 집속탄을 탑재한 현무-5로도 유효살상 범위는 축구장 면적의 700배를 넘는다. 이를 근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사망률 데이터를 기준으로, 화산-31형 핵탄두의 예상살상력과 그에 상응한 현무-5의 개수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해 올 경우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 대량응징보복 체계다. 현무-5 미사일의 개발 목적은 고위력 재래식 병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하여 북한의 지하 지휘시설을 파괴하는 데 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이원택 의원 완주 제2혁신도시 공약, 철회하라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내놓은 '제2혁신도시 조성' 구상이 지역사회에서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완주 삼봉지구에 또 하나의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그의 제안은 얼핏 보면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정치적 계산에 더 가깝다.

혁신도시 제도의 근본 취지는 분명하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지방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균형발전 전략이다. 하지만 완주는 이미 '전주·완주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혁신도시 수혜를 누리고 있다. 그 결과 완주는 도내 군 단위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기반시설과 생활여건이 개선된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지역에 다시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더구나 완주 혁신도시시는 행정구역상 완주군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전주권의 생활·경제권 확장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이 지역에 또다시 집중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전주·완주 중심의 행정 집중을 심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전국적으로도 혁신도시시는 도청 소재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성해 왔다. 충북의 진천·음성, 경북의 김천, 전남의 나주, 강원 의 원주가 그러하다. 이는 지역 내 집중조차 피하려는 균형발전 철학의 구현이었다. 그런데 전북은 이미 도청권에 인접한 완주에 첫 혁신도시를 만든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전국적 기준에서도 예

외적이며 위험한 선택이 된다.

이 의원의 제안이 더욱 문제인 이유는 이 구상이 도지사 선거용 공약으로 기획된 의도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민감한 지역 이슈를 슬그머니 끼워 넣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표 계산용'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냄새가 짙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도 국가균형발전의 기초를 설계한 자당의 철학을 거스르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곧 정책적 일관성과 정당성의 붕괴로 이어진다.

지금 전북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정수 등은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전주·완주권만을 위한 '제2혁신도시'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도민 간 갈등을 키우고,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도시 조성의 구조가 아니라,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 간 연계성 강화다. 산업·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고르게 확충해 전북 전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혁신의 길이다. 도지사 출마를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도민의 표보다 도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제2혁신도시'는 선거용 미끼가 아니라 전북 균형발전의 진정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공약을 철회하고 전북 전체의 균형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이야말로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정치의 출발점이다.

문화재열전

순창객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궁궐·관아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순창군 순창7길 40

(순창읍, 순창초등학교)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우) 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는 독자 여러분을 대변 해 드립니다

N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JBT

가을 군산으로 훌쩍 떠나보자! 군산 숨겨진 여행코스

근대문화의 자취가 남아있는 '시간여행마을' 섬이 빚어낸 한 폭의 풍경 '고군산군도' 등

사계절 다양한 매력이 돋보이는 군산에 최근 가을여행 방문객들의 발길이 잦다.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군산여행의 추천코스를 알아본다.

◆ 군산시간여행마을

군산은 1899년부터 개항되어 일찍부터 외국의 근대 문물이 전해지면서 발전해왔다. 때문에 군산 시내 곳곳을 걷다 보면 근대문화의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특히 많은 일본 상인들이 쌀을 사기 위해 군산에 모여들어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던 영향으로 아직도 군산에는 일본식 집, 세관, 은행, 절 등이 남아있다. 대표 사적으로는 부잔교, 식량영단, (구)조선은행 등이다.

만약 일제 강점기에 힘들게 살아왔던 일반 서민들의 삶과 항쟁의 역사를 배우기 원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교육 여행의 목적지로 군산은 손색이 없다.

시간여행마을과 가까운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 강점기 군산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지역이었던 신흥동에 세워진 주택으로 히로쓰 가옥으로 불린다.

목조 2층 주택으로, 지붕과 외벽 마감, 내부, 일본식 정원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의의가 크다.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되었으며, 영화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타짜' 등 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이 주택에서 촬영됐다.

◆ 고군산군도

군산 앞바다에 펼쳐져 있는 고군산군도는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대장도, 관리도, 황경도, 말도, 방죽도, 신시도, 명도, 야미도, 연도, 어청도, 개야도, 죽도, 비응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다채로운 섬이 함께 한 덕에 선유도의 망주봉과 명사십리, 장자도의 사자바위와 할미바위 등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들도 즐비하다. 등산 및 하이킹·캠핑·바다낚시·갯벌체험·공중하강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즐거거리 역시 가득해 최고의 해상관광을 즐길 수 있다.

추천코스는 '장자도 스카이워크'로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는 신비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야간에는 수많은 LED경관조명이 연출하는 신비한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스카이워크 옆 장자도의 대장봉을 올라가면 고군산군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매력적인 장관 덕에 일출·일

몰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 은파호수공원

군산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휴식처인 은파호수공원은 대표적인 도심 속 관광 쉼터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각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곳곳에 물빛다리, 음악분수,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책로와 조깅코스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야경이 아름다운 1.1km의 별빛다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친 마음과 몸의 피로를 풀 수 있다.

최근에는 주변 곳곳에 멋스러운 카페와 맛집들도 생기면서 연인들의 핫플레이스로 인기 만점이다.

◆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군산의 해마다에 자리잡은 어시장으로 군산 시내와 인접해 있고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외지 손님들의 방문이 급증하는 서해안 대표 어시장이다. 본관동 및 임시건어동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동 1층 수산물 판매점포 72여개(활어, 선어, 수산가공품), 2층 수산물 식당(상차림 식당, 횃집 등), 편의점 총 10개가 운영중이다.

본관동 1층에는 신선한 활어와 선어, 젓갈과 같은 수산가공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2층에는 1층에서 판매하는 횃감을 펴서 먹을 수 있는 상차림 식당, 횃집 등이 있다.

건어동은 올해 10월 신축 건여 매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는 임시 매장 25개가 다양한 종류의 건조 생선을 판매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오후 8시이며, 매주 화요일은 휴무이다.

◆ 청암산

군산 청암산은 군산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45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2008년 개방된 후, 생태관광지로 조성된 곳이다. 덕분에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추천코스는 수변 산책로와 등산로를 이용해 청암산 정상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주차장 - 역새풀길 - 산림욕장 - 왕버드나무 군락지 - 삼거리 쉼터 - 청암산 정상 - 삼거리 쉼터 - 주차장까지 돌아오는 4.5km 거리이다. 시간은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시간여행마을 히로쓰가옥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야경



청암산 가을일출



고군산군도 선유도해수욕장 일몰